

“미륵사지석탑 졸속 해체 사과하라”

민주당 연등회, 문화재청에 질의서 제출

“문화재청이 사리에 대한 예를 다하지 않고 졸속으로 미륵사지석탑을 해체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가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해체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문순 의원은 “불교에서 사리는 감정대상이 아닌 신성한 존재”라며

“이번 미륵사지 석탑해체과정은 문화재 없는 문화재청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미륵사지 석탑 졸속해체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이 이뤄져야한다”며 “문화재청은 불교계에 사과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통일신라시대 불교유물 대규모 발굴

군위 인각사 제5차 발굴조사 중 출토



군위 인각사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알려진 군위 인각사(사적 제374호)에서 통일신라시대 불교유물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는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을 발견했다고 2월 9일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했다.

발견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9세

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병향로, 청동정병 2점, 청동반자 등 10여 점이다. 특히 금동병향로는 부여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비교되는 발견으로 눈길을 끈다.

범하 스님은 “이번 발견은 고고학·미술사·불교사 등 관련 분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동국대, 2월 13일 새 이사장 선임

재단임원 간담회 통해 이사회 소집결의

동국대 새 이사장이 빠르면 2월 13일 선임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직무대행 영담)는 2월 3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재단임원 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 오후 3시 이사회 개최를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사들은 △이사장 선임건 △2009학년

도 예산안 심의건 △산학협력관 및 국제관 건립에 대한 건 등의 안건을 주제로 13일 이사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 스님(월정사 주지)과 전순표 회장(총동창회)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바라밀 운동 잇겠습니다”

불광사 광덕 스님 10주기 맞아 ‘전집’ 발간·토론회 열어



불광사는 광덕 스님 10주기를 맞아 '광덕 스님 전집'을 발간, 2월 6일 봉행된 추모법회에서 봉정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순수불교 행원불교 실천불교를 삶 속에 구현하고 인간완성 국토완성 역사완성을 지향하며 펼쳐신 반야바라밀 운동을 지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가 불교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로 존경 받았던 광덕(光德 1927~1999) 스님의 유지를 이어 현창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했다. 불광사는 2월 6일 광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에서 ‘광덕 스님 전집’을 봉정하고 유지를 계승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법어를 한 이날 법회에는 지홍 스님과 지정 스님(불광사 2대 법주),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불광사가 모두 10권으로 묶어 발행한 ‘광덕 스님 전집’에는 광덕 스님이 생전에 남긴 육필원고 전체와 생애와 사상, 법어, 찬불가 가사, 강설원고 등이 망라됐다. 불광사는 앞으로도 녹취된 법어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전집 발간 축하 법어를 통해 “상족(上足) 지홍 수좌 등 출세가자들이 열반 10주기를 보은행으로 종사의

문자반야 10권 전집을 결집케 하였으니 문도의 기쁨이요 종문의 경사이며 시대의 지남(指南)이로다”고 간행을 찬탄했다.

불광사는 전집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7일 개최했다. ‘반야바라밀과 순수불교의 광덕 사상’을 주제

로 한 토론회에서 김영태 동국대명예교수는 ‘광덕 스님 연구에 대한 조그만 견해’를 제목으로 하는 기초 강연을 통해 “광덕 스님과 불광법회의 시대사적 의의와 향후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

한 노력과 관심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도 기초발제를 통해 불광법회와 반야바라밀운동의 성과와 의의, 향후 과제 등을 상세하게 짚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문광부, 서울시청에 십자가 철거 공문 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종교차별신고센터는 2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설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광부는 “공직자 종교차별사문회의 결과 시청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의 십자가가 타종교 기념일의 상징물과 형평성 관계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종교상징물로 인해 일반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세)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관심과 시정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십자가 트리가 설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본사주지회의

국립공원구역 조정 논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삭도 설치 완화 등 사할 수행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국가 환경정책에 대한 조계종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2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문화재사찰위원회의 국립공원 사회화의 등을 거쳐 정부 환경정책 과정에 불교계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2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축년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2008년 중앙종무기관 결산과 2009년 주요사업, 자비나눔 사업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문화재사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국가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오후 2시에는 국립공원 내 사찰주지회의를 통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서불대 다시 분규 속으로?

서불대 이사회, 황 총장 및 교수 2인 해임

지난해 무더기 학생 제적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가 다시 분규에 휘말리고 있다.

서불대는 2월 3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지옥총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지옥총장을 해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박성현, 성승연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를 통보했다.

황 총장 해임사유는 규정상 3급 직원이 1인이나, 2인으로 발령한 점, 인사위 위원장(김영란 교수·前 총장대행)의 인사위 소집 거부로 총장이 직접 인사위를 소집한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불대 이사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로 복귀된 황 총장 해임과 인사위 제정을 ‘사립학교법’ 상 절차

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전망이다.

서불대 한 관계자는 “1월 30일 서불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前 이사장)에 관한 법원 판결이 종결돼 덕해 스님이 이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옥 스님측이 이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황윤식 총장은 현재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재임용이 거부된 박 교수 등은 4일 교과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불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6일 서불대 교수협의회(회장 김명권)는 성명서를 통해 지옥 스님의 이사장직 사퇴와 부당해임 철회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종평위, “대학 안 종교시설 안돼”

국무총리 규제개혁실로 반대 의견 뒷북 접수

조계종 총무원이 대학 내 종교시설 설립 개정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뒤늦게나마 표명했다. 조계종의 종교편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담하는 종교평화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서영, 손안식)는 2월 5일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종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대학 설립자가 소유한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에 더해 일반 종교 단체까지 시설 건립을 허락할 경우 각 사립대학이 선교경쟁의 장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종교편향 및 차별논란이 예상되는 제3조 2항의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교과부가 1월 9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포한 개정안 이의접수 기간(20일)동안 대응하지 못해 교계 언론에 비판을 받아왔다.

종평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기일이 지나, 법안을 검토중인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2045 FAX 02)730-8528

* 작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연)

韓 國 民 俗 哲 學 研 究 所 所 長 方 弼 錫

주역 개인지도

대 외 활 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회의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요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 前 世界佛敎徒 友誼會 弘報次長
-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